

땅 얻고 바다 잃은 새만금 개발 30년

새만금 개발사업 착공 30주년

우여곡절 속 간척지 개발 본궤도
국책사업 무색케 완공은 30년 뒤
친환경 개발과 분쟁 종식도 과제
국가적 관심과 과감한 투자 절실

글·사진=정성학 기자

단군 이래 가장 큰 국책사업이란 기대를 모았던 새만금 개발사업이 첫삽을 뜬 지 30주년(28일)을 맞았다.

‘새땅을 얻고 바다를 잃었다’는 거친 찬반논쟁 속에 방조제가 준공된 데 이어 간척지 개발사업도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는 적지않고 그 완공 또한 30년 뒤에나 볼 수 있을 정도로 터덕대다 보니 보다 강력한 국가적 관심과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만금 개발 현황 2면>

<송하진 도지사 인터뷰 16면>
새만금은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인 1991년 11월 28일 착공했다. 민족의 식량창고로 불려온 만금(萬金)평야, 즉 새로운 만경·김제평야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국가적 과제로 시작됐다.

환경파괴 논란에 두 차례에 걸친 사업 중단과 재개 끝에 군산 내초동과 부안 대항리를 잇는 세계 최장 방조제가 준공됐다. 무려 33.9km에 달하는 대역사로 약 19년이 걸렸다.

그 사이 시대적 요구사항은 크게 변했다. 정부는 올해 초 새만금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해 큰 주목을 받았다.

당초 육도로 계획됐던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과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할 이른바 K뉴딜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그 완공시기(2050년)도 처음으로 명확히 못박았다.

이를 전담할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도 잇달아 설립하면서 내부개발 또한 속도감이 붙었다. 이 과정에서 물류 대동맥인 동서도로가 준공되고 첫 도시 개발사업인 수변도시가 착공되기도 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또한 가속화되면서 전기자동차 제조사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 등이 속속 입주하는 등 본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개발 대상 291㎢ 중 부지 조성이 완료됐거나 조성 중인 곳은 43%(124.5㎢)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 완공된 모습은 앞으로 30년 후에도 볼 수 있다는 점은 한층 더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여기에 수 십년째 반복되는 새만금 호수질 오염과 갯벌 파괴 논란, 새만금권 지자체간 행정구역 분할 다툼 등도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겨졌다.

국책사업이란 이름에 걸맞는 국가적 관심과 집중적인 투자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와관련 “새만금은 전북인의 한이 서리고 혼이 깃들여 있다. 대법원 판결까지 거치는 반대를 극복하고 이뤄낸 역사적 결과물이자, 눈물과 땀으로 이뤄낸 미래의 꿈과 희망의 상징물이기도 하다. 이 거대한 땅은 이제 국가적 의지만 있다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그릴 수 있는 창조의 공간으로 바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만금은 전북,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이 걸린 미래 발전의 용광로이자 보물창고라 할 수 있다. 그런면에서 가속화된 내부개발을 발판삼아 새만금을 미래 생태문명시대의 보고(寶庫)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새만금 개발사업 착공 30주년(28일)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군산시 내초동 5호 방조제 앞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엔 휴일을 무색하게 건설장비들이 쉴새없이 돌아갔다. 이 곳은 새만금에서 가장 활발한 개발사업지로, 전체 9개 공구 중 2곳이 완공돼 기업체가 속속 입주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농업 환경 항생제 내성관리… 식물의사제도 도입 필요

전북대·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순천대·농수산대학 공동 심포지엄
농업환경 변화로 병해충 발생 증가… 농용항생제 사용 늘어 내성 우려

기후변화로 농업환경이 녹록치 않다. 열악한 농업환경은 병해충 발생을 증폭시키고 있다. 당답아 농용항생제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농업 환경에서 항생제 내성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정지권, 산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식물 위생을 위한 병해충 방제용 항생제 관리방안 중의 하나로 ‘식물의사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동물은 수의사가 있고, 나무는 나무의사가 있다. 식물에는 식물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

전북대학교,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순천대학교, 국립한국농수산대학 공동으로 농업정책 어젠다의 하나인 ‘식물 위생을 위한 병해충 방제용 항생제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26일 전북대 진수당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전북대

주호종, 최인영, 신태영, 윤주연, 김소라, 윤준선, 송수연, 이수연 교수들 비롯해 국립농수산대 권덕호, 국립순천대 이세진, 충북대 김길하 교수, 경북대 이동원,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류경열 연구원, 주식회사 청명 아그리스 명을재 대표, 한일씨어런스 김종관 이사 등 학계, 산업계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규재 전북대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오늘 심포지엄은 사실상 식물의사제도 도입과 정착, 필요성에 대한 발기인대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국회, 농민회 등 각계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의원은 축사에서 “장기적으로 식물 항생제 오남용 피해는 단순 식물이 아닌 인간에게까지 확대될 것이다.”며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자는 뜻에서 원헬스 개념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관련 입법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경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원택 의원도 축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강한 전파력으로 동물 전염병뿐만 아니라 식물 전염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농작물 전염병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식물닥터제 도입 등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갖추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래 기자



새전북신문 문학상 대상 김정길

작품상 윤철, 모임득 수상

수필가 김정길의 ‘빈둥지’ 외 2편이 2021 새전북문학상 대상을 차지했다. 또, 수필가 윤철의 ‘당신, 가족은 안녕한가요’ 외 2편, 수필가 모임득의 ‘연필’의 2편이 각각 작품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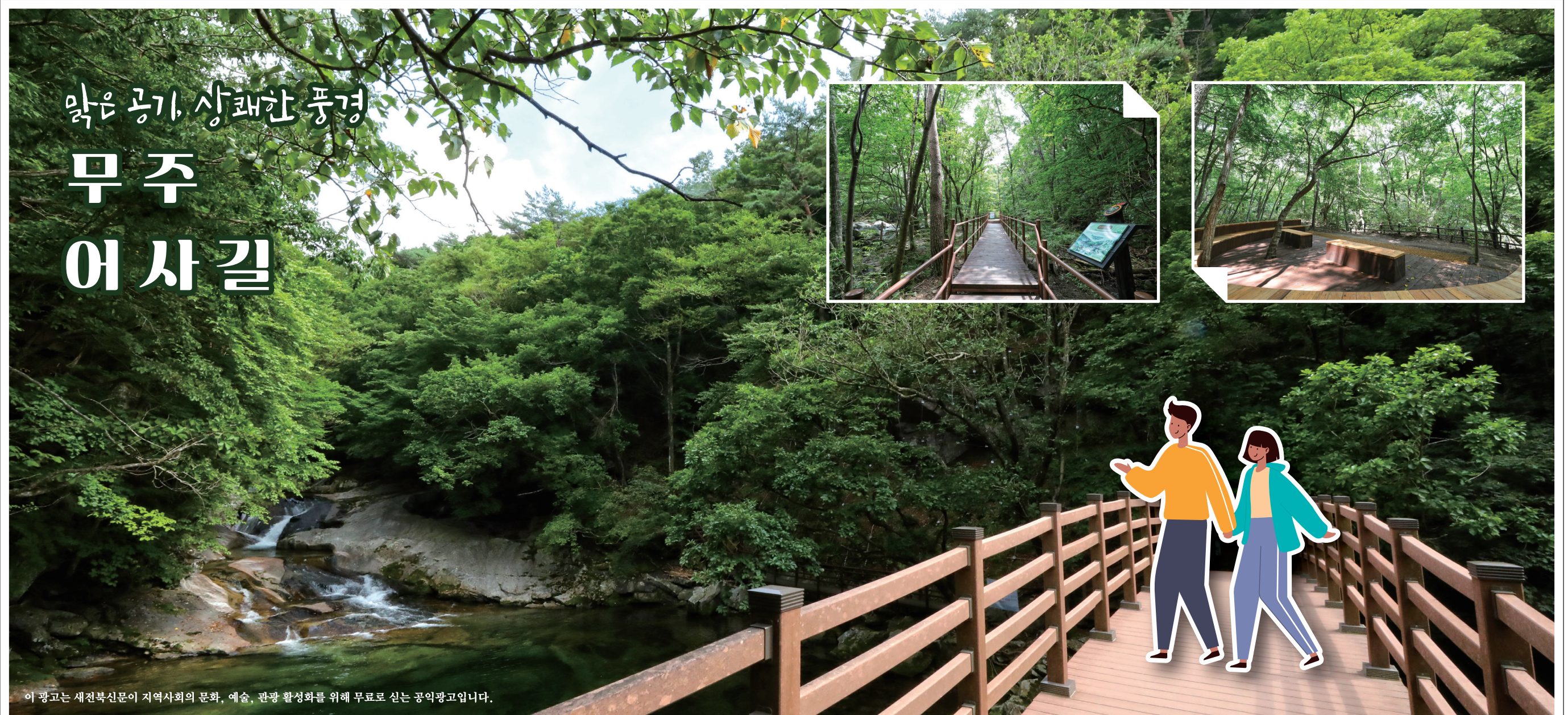
새전북신문은 26일 오전 10시 본사 회의실에서 2021 새전북신문 문학상 시상식을 가졌다. 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문학상은 육육결즈의 후원 아래, 전국 문인을 대상으로 공모, 수필집과 수필 29명, 87개 작품이 접수됐다. <관련기사 14면>

배귀선 심사위원장은 “김정길의 기행수필은 자연과 인간의 교감에서 얻어진 결정체라는 특징과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와 환경적 차원에서 시선을 붙들었다고 했다. <울림>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해 보여주는 행적과 함께 희생과 봉사 정신에 빚대어 종교계의 반성을 배면하고 있으며, <빈 둥지>는 아버지의 죽음과 까치둥지가 비어 있는 형상을 비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윤철의 <당신, 가족은 안녕한가요>는 “가족을 위협하는 적은 외부의 누군가가 아니라 울타리 안에 있는 가족”이라는 통찰과 함께 현대적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모임득의 <연필>은 지인으로부터 받은 연필에 자신의 글쓰기를 대입하는 등 소소한 이야기들은 작은 것을 통해 큰 울림을 주는 문학의 특질을 이면화하고 있다”고 했다.

박명규 새전북신문 대표이사는 “창간 21주년을 맞아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가진 새전북문학상이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한국 문화를 창달하는 데 일익을 다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경자 육육결즈 이사는 “육육결즈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13년 동안 여성의류를 취급해온 회사로, 언론 본연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새전북신문 문학상을 후원하게 돼 매우 뜻깊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박명규 새전북신문 대표이사, 김경자 육육결즈 이사, 서정환 신아출판사 대표, 이행욱 여원공연시낭송예술원 이사장, 박경숙 전북수필문학회 사무국장, 수필가 김재희, 한제욱 전주 YMCA 이사장, 오사모 하용욱 등과 수상자와 그 가족, 그리고 심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종근 기자

- 2면 초중고 생태체험장 조성사업 반토막
- 3면 민주 전북선대위 구성 임박… 2030표심 절실
- 5면 전쟁중에도 수업받았는데… 학부모 분노
- 14면 새전북 문학상 수상 소감



이 광고는 새전북신문이 지역사회의 문화, 예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실는 공익광고입니다.